‘정법 바다’서 진짜 불교 강의 만나다

정해학당 10주년 맞아
5월 4일 기념법회 봉행

10~15명 소규모 그룹
부산 · 안동서 강의 진행
학생 절반 10년간 참여

주입식 아닌 토론 위주
“논쟁 없음 강원 아냐
인연되면 서울 강의도”


정해학당의 강의 모습. 10년간 진행된 토론식 수업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산과 안동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불교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정해학당이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정해학당(학장 오경)은 5월 4일 오전 10시 안동 보경사에서 개원 1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개원 이래 학당과 인연을 맺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 학당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정해(正海)학당은 2009년 4월 부산에서 처음 개원했다. 경전 공부, 참선 수행 등을 배우고 익히는 강원(講院)의 성격이 강한 공부모임으로 운영돼 왔다. 이후 학장 오경 스님이 안동 보경사를 창건하면서 안동 정해학당이 문을 열게 됐다.

부산과 안동, 두 곳의 학당에서는 지난 10년 간 〈금강경〉 〈화엄경〉 〈원각경〉 등 불교 경전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가 이뤄져왔다. 현재 부산 정해학당에서는 매월 2 · 4주 수요일 저녁 7~10시에 〈금강경 오가해〉에 대한 강의가 열리며, 안동 정해학당에서는 매주 1 · 3주 저녁 7~10시에 〈대승기신론 원효소〉 강연회가 펼쳐진다.

10년이 됐지만 학당 거친 사람들은 100여 명 안팎이다. 15명으로 시작했지만, 매 강좌가 15명을 넘은 적은 없다. 지금도 부산 정해학당에서는 12명, 안동 정해학당에서는 10명이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소규모 그룹 교육이지만 강한 결속력을 자랑한다. 학생 90% 가량이 5년 이상 학당에서 강의를 듣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초창기 멤버들이다.

이 같은 학생들이 강한 응집력을 보이는 것은 강의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해학당은 사찰불교대학에서 하는 일반적인 주입식 강의는 지양한다. 강의 후에는 논의와 토론이 이어진다. 통상 강의시간이 3시간이지만 경구 하나를 놓고 학장과 학생의 날선 논박이 이뤄지곤 한다. 그러다보니 경전 하나를 완전히 강의하는 데 수년 씩 걸리기도 한다. 실제 부산에서 했던 〈대승기신론 원효소〉 강의는 3년이 걸렸고, 〈원각경〉 강의는 6년가량 진행됐다.

정해학당 학장 오경 스님은 “옛 스님이 말씀하길 ‘논쟁이 없으면 강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해학당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된다”면서 “생각을 바꾸려면 주장과 논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한다. 수업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2~3년 정도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오경 스님은 정해학당을 대중성보다는 ‘전문성’에 방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개원 당시 추구했던 ‘깊이 있는 경전 교육과 이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오경 스님은 “상식적인 강의는 일반 사찰 불교대학에서 하고 있다. 깊이 있는 경전 교육과 정법을 바탕으로 한 신행을 하고 싶은 불자들을 위한 강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인연이 닿으면 서울서도 강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단기출가지만 출가는 출가. 동자스님들에게 삭발은 어려운 일이었다. 울고 웃으며 삭발식을 거친 동자스님들의 모습이 결연해 보인다.

눈물과 웃음, 동자승 출가의 길은 멀다

조계사, 동자승 단기출가 삭발수계식 개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후로 길러온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자 동자스님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어머니를 찾아 두리번거리다 눈물을 흘리는 동자스님부터 곱게 깍은 머리가 신기한 듯 웃음을 보이는 동자스님까지 이들의 모습은 천진불 그 자체였다.

서울 조계사는 4월 2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인 보리수 새싹학교 삭발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번 단기출가에 참여한 동자스님은 성현 · 명현 · 명신 · 명법 · 명조 · 명관 · 본엄 · 본성 · 다명 · 진화 스님 등 총 10명으로 유치원에 다닐 나이지만 의젓함을 보였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이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계는 부처님의 근본”이라며 “착한일을 하고 악한일을 하지 않음으로서 마음을 깨끗이하고 아름답게 하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동자 스님들은 4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동자 스님들은 이날 원행 스님에게 자신의 사진이 담긴 달력을 선물했으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컬러링북과 필기구, 단주 등을 선물했다. 원행 스님은 동자 스님 한명 한명에게 단주를 채워주며 “성불하세요”란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조계사 보리수 새싹학교 소속 동자스님들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12일까지 연등회 등 봉축 주요행사에서 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문화체험과 전통교육 등도 함께 받게 된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노후자금 전액, 승려복지에 회향한 스님

책 〈마음거울〉 저자 대화 스님, 1억원 쾌척

전북 장수 소재 ‘힐링캠프 명상의 집’ 대표이자 〈마음거울〉(민족사)의 저자 대화 스님이 노후자금으로 저축해 놓은 약 1억 원을 승려복지기금으로 기탁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대화 스님은 4월 11일 자신의 통장에 모아놓은 1억8만원을 승려복지회 후원금으로 입금했다. 대화 스님은 그동안 인연 있는 불자들에게 매일 아침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SNS로 전송하다가 승려복지회 소식을 접했다. 스님은 후원금을 입금하면서 “한 때 여러 곳에 약소한 후원금을 보내다가 언제부턴가 다 끊었다. 하지만 승려복지부터 다시 시작해 보은하겠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스님은 법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8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계했다.

조계종은 2011년 승려복지법을 제정하고 승려복지제도 최초 시행 당시 만 65세 이상 무소득, 무소임자스님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이후 2015년부터 구족계를 받고 결계를 필한 모든 스님들로 대상이 확대됐다.

윤호섭 기자

영화 ‘님의 침묵’ 연말 개봉한다

한명구 감독, 4월 24일 제작발표회

독립운동가이자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님의 침묵’이 올해 연말 개봉한다.

홍성군을 비롯해 만해 스님의 발길이 닿은 인제군(출가지 백담사), 고성군(수행지 건봉사), 서울 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 · 성북구(입적지 심우장) 등 여러 지자체가 후원해 제작되는 영화 ‘님의 침묵’은 만해 스님과 동향인 한명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에서는 원로배우 김희라 씨가 말년의 만해 스님 역을 맡았다. 또한 아역은 이준서 군, 소년역은 장재원 군이, 만해 스님의 모친 역은 ‘국민엄마’ 정혜선 씨가 연기한다. 이외에도 안병경 · 홍석연 등 유명배우들이 ‘님의 침묵’에 캐스팅됐다.


만해 스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님의 침묵’ 한명구 감독(사진 가운데)과 출연배우들이 무대인사를 하고 있다.

한명구 감독은 4월 24일 충무로 한국의집 민속극장에서 제작발표회를 열고 “만해 스님의 발자취를 남아낸 ‘님의 침묵’은 올해 연말 개봉을 목표로 촬영 중”이라며 “좋은 배우들과 만해 스님의 업적을 잘 담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호섭 기자

“어떤 불서 읽을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제12회 불교도서축제, 5월 2일 조계사서 열려

하루가 멀다 하고 책들이 출판되는 세상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불서도 마찬가지. 이처럼 너무나 많은 책들로 인해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도서축제가 열린다.

조계종 문화부는 5월 2일 서울 조계사 사적비 앞마당에서 ‘제12회 불교도서축제’를 개최한다.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회원사들이 최근 출간한 책 400여 종을 접할 수 있다. 불교출판 활성화와 사찰도서관 지원이라는 공적인 목표에 따라 불교서적 10% 할인 판매, 커피 쿠폰 및 에코백 증정 등의 이벤트도 진행된다.

올해로 12년째 진행되는 불교도서축제는 불자들의 ‘불서 읽는 문화 확산’과 불교계의 ‘출판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축제 수익금은 전액 도서로 전환, 사찰 공간을 활용하고 불교문화를 알리는 ‘부처님 글사랑’ 사찰도서관에 지원된다.

불교도서축제 수익금으로 매년 1~2곳의 사찰도서관이 개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곳의 사찰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주최 측은 올해도 수익금 전액으로 18번째 사찰도서관을 개원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